

이나 임상적으로는 해부학적 위치와 주위조직으로 침윤해 들어가는 파괴성 및 적출시의 출혈성, 불완전한 적출로 인한 재발 때문에 악성으로 알려져 왔다. 흔히 사춘기 이전에서 호발되고 사춘기를 지나서는 발생율이 적은 종양의 하나이며 대부분 비인강에 나타나며 비중격에 생긴 예는 아주 희귀하다. 저자들은 최근에 비중격에 발생한 혈관섬유종 1예를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37세 된 남자로서 1개월 전부터 비폐쇄과 빈번한 비출혈을 호소하여 본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 국소소견상 좌측 비강을 거의 폐쇄하고 있는 종물이 보여 1983년 1월 21일 국소마취하에서 경비적으로 완전적출술을 시행하였다. 술후 3일째 퇴원하여 현재까지 관찰중이나 별 이상 없이 경과하고 있다.

- 6 -

Pierre - Robin Syndrome 1例

메리놀병원

천만희 · 박옥희 · 이승우 · 조중환

1923년 Pierre - Robin 이 소하악증, 설하수증 및 고궁구개 (high - arched palate) 혹은 구개 파열의 3주징을 처음으로 기술하였다. 기도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신속하며 적절한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 증후군은 출생아 5만명 중 1명 정도로 드물게 발생한다. 이 증후군의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하악골발달의 일차적 부전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소하악증으로 인해 혀의 기저부가 후방으로 이동하여 인두후벽에 접근하여 기도폐쇄의 증상이 발생하며 이는 영아가 양와위를 취할 때 악화된다.

환자를 복와위로 유지시킴으로서 경한 기도폐쇄의 문제들은 해결되지만, 섭식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기도폐쇄가 악화되므로 빨리 설교정술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기관절개술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설교정술에는 Douglas 수술법, Kirschner wire 삼입법 및 Duhamel 봉합법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최근 호흡곤란 및 섭식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출생 2개월 된 남아에서 소하악증, 설하수증 및 고궁구개 (high - arched palate)를 확인하였으며 Duhamel 봉합법으로 기도폐쇄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후 관찰 중인 이 환자를 Pierre - Robin Syndrome 으로 생각하기에 보고하는 바

이다.

- 7 -

頰部를貫通한 鼻腔內異物 1例

國立醫療院

徐丙國 · 李俊熹 · 許南鎮 · 朴載勳

鼻腔內異物은 주로發生하는年齡層이 小兒이고, 成人에서는 精神疾患이 있거나, 鼻腔疾患으로 手術을 받은 患者(特히 外科的 治療)에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 만성 소모성 疾患을 가진 患者에서 볼 수 있다.

鼻腔內異物은 外鼻孔을 통하여 鼻腔內 位置하는 것이 가장 많으며 그이외에도 後鼻孔, 貫通創 등을 통하여 發生한다.

最近 著者들은 頰部를貫通하여 4日間 鼻腔內 체류한 鉛筆을 治驗하였기에 문헌고찰과 아울러 報告하는 바이다.

- 8 -

후비공 폐쇄 2례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심강석 · 이석용 · 문태용 · 윤강묵

후비공 폐쇄는 협비막의 파열부전, 협인두막의 지속적 잔존, Olfactory pit의 발생시 불완전 등의 선천성 원인과, 매독디프테리아, 수술후 또는 외상등으로 오는 후천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선천성인 경우에는 두부, 심장, 소화기 계통에 여러가지 기형이 동반되기도 한다.

Johann Roedere (1755년)은 이질환의 예를 최초로 보고 하였으며 Emmert (1853년)가 골성 폐쇄를 트로카를 이용하여 처음 수술을 시도한 이래, 비강, 구개, 상악동, 그리고 비중격을 통한 수술 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이중 경구개 경유법이 술후 재협착 빈도가 가장 적고 또 수술시 폐쇄부의 확인이 용이하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저자들은 선천성 양측 부분적 골부 후비공 폐쇄를 보인 11세 남아와 선천성 우측 완전 골막부 후비공 폐쇄와 좌측 부분적 골막부 후비공 폐쇄와 좌측 부분적 골막부 후비공 폐쇄를 보인 9세 여아에서 경구개

경유법으로 치험하였기에 문헌적 고찰과 함께 보고 하는 바이다.

- 9 -

上顎骨에 발생한 含齒性囊腫 1例

전북의대

홍기환 · 조규모 · 김홍수

含齒性囊腫은 顎骨內에 發生하는 齒系囊腫의 일종으로 齒牙形成後期에 생기는 것으로서 顎骨內 어느 部位에서나 發生하나 주로 下顎骨에 빈번히 발생한다. 발생연령은 주로 20代와 30代에서 호발하여 男子가 女子보다 약간 높은 發生빈도를 갖는다.

이囊腫은 囊胞에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濾胞性囊腫이라고도 하는데 흔히 매복되거나 轉移된 齒牙 또는 과잉치에서 발현된다고 한다. 上顎洞內로 轉移된 齒牙는 특별한 증상없이 지내는 수도 있으나 때로는 만성염증, 법랑아세포종(Ameloblastoma) 또는 편평상피암(Squamous cell Carcinoma)으로 된다는 報告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기진단과 적절한 外科的 처치가 중요하다 하겠다.

齒牙가 鼻腔 또는 上顎洞 및 上顎骨등의 이상위치에서 發生된 例는 1754年 Albinus가 처음 報告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朴, 劉, 趙등에 의한 報告例가 있다.

外科的 처치로는 Enucleation, Marsupialization, Decompression 方法이 있는데 囊腫의 發生部位, 크기, 감염여부, 주위조직과의 관계등 여러가지 임상적 조건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方法을 선택해야 하겠다.

著者は 최근 전북의대 이비인후과에 右側 견치와의 腫脹및 을 主訴로 來院한 上顎骨內에 發生한 含齒性囊腫을 enucleation 方法으로 摘出하여 좋은 結果를 보았기에 文獻的 考察과 함께 報告하는 바이다.

- 10 -

중이수술 128례에 대한 임상적 세균학적 고찰

성분도병원

김광수 · 김정중 · 이계실 · 차인숙

만성중이염은 이비인후과의 가장 흔한 질환중의 하

나로 이에대한 수술요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려운점이 많이 있다고 하겠다. 저자들은 1981년 2월부터 1983년 2월 까지 부산성분도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만성중이염이란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환자 128예에 대해서 임상적 세균학적 관찰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별과 연령비는 여자가 68예(53.1%), 남자가 60예(46.9%), 또한 연령별로는 20대가 48예(37.5%), 10대가 37예(28.9%) 그리고 30대가 27예(21.1%)의 순서였다.

2) 환측별은 우측이 71예(55.5%), 좌측이 57예(44.5%)이었다.

3) 수술전청력검사상 중등도의 손실이 64예(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도손실이 32예(25%)이었다.

4) 고막천공의 상태는 중심성천공이 65예(50.8%), 전결손이 44예(34.4%), 이완부천공이 12예(9.4%) 그리고 변연성천공이 7예(5.4%)이었다.

5) 진주종이 전체의 36.7%인 47예에서 나타났다.

6) 피부절개 및 수술경로는 postaural incision 이 123예(96.1%)이었다.

7) 국소마취가 95예(74.2%)이었다.

8) 수술방법은 intact canal wall tympanoplasty with mastoidectomy 가 53예(41.4%), tympanoplasty without mastoidectomy 가 42예(32.8%) modified radical mastoidectomy 23예(18%) 그리고 radical mastoidectomy 가 10예(7.8%)이었다.

9) Culture 를 시행하여 분리된 균주 93종 중 proteus 가 29종(31.2%), staphylococcus 가 27종(28.7%), pseudomonas 가 22종(23.7%) 그리고 streptococcus 가 7예(7.5%)이었다.

- 11 -

鑿骨固定症에 대한 鑿骨切除術

서울의대

金宗善 · 李光善 · 趙愛英

鑿骨固定症은 先天的 畸形으로서 단독 또는 他畸形과 동반되어 발생되거나, 後天的으로 耳硬化症이나 혹은 中耳炎의 후유증으로 발생될 수 있다.

저자들은 先天性 鑿骨固定症이 있는 4例(5耳)와 慢性中耳炎失후에 발생된 鑿骨固定症 2例(2耳)에 대하여 鑿骨切除術을 실시하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19-

Nasal Foreign Body Through the Cheek

Byoung Kuk Seo, M.D., Joon Hee Lee, M.D.,
Nam Jin Hur, M.D., Jae Hoon Park, M.D.

Department of E.N.T., National Medical Center

Children constitute a large majority of patients with foreign bodies in the nose. Adults with foreign bodies in the nose are usually mentally disturbed, and may be the victims of penetrating injuries or of operation on the nose.

Foreign bodies enter the nose through the anterior naris, posterior naris, penetrating wound, . . . etc.

Authors experienced a case of the broken pencil, 3.5cm in length, which entered the nose through the cheek and stayed there for 4 days.

2 Cases of Bilateral Choanal Atresia

Kang Suk Shim, M.D., Seock Yong Lee, M.D.,
Tae Yong Moon, M.D., Kang Mook Yoon, M.D.

*Dept. of Otorhinolaryngology,
College, Yonsei Univ. Wonju Medical*

Choanal atresia, described first by Johann Roedere (1755) is an obstruction between the nasal cavity and nasopharyngeal vault, and the diagnosis and treatment were developed because of severity of the disease.

Embryologically, incomplete development of olfactory pit, or failure of nasobuccal membrane to rupture, or persistant remaining of buccopharyngeal membrane, etc, all forms the congenital choanal atresia. And the acquired type was the result from syphilis or diphtheria with a resultant stenosing ci-

catrinx and after the inexpert surgery and the trauma. Multiple abnormalities may be present particularly affecting the head, the heart and the alimentary system in the congenital type.

The operative technique employed would depend upon the type of obstruction (whether membranous or bony), the age of the patient,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any associated pathologic condition. Since Emmert (1853) first tried blind puncture of the atretic plate with the trocar, other surgical techniques have been introduced over the years for the correction of choanal atresia, which were the transnasal, transpalatal, transantral and the transseptal approach. Among them, transpalatal approach was proved to be a popular technique, that it provides a direct route, thus permitting an exact reconstruction and low restenosis rate.

Recently, we have experienced two cases of choanal atresia and treated successfully with transpalatal approach, so authors report these cases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 Case of Dentigerous Cyst of the Maxilla

Gie Hwan Hong, M.D., Kyu Mo Cho, M.D.,
Hong Soo Kim, M.D.

*Dept. of Otolaryngology, Jeonbug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The dentigerous cyst involving maxilla is rare disease in Otolaryngologic field. A case of 22-year-old male patient involving dentigerous cyst of the maxilla with chronic inflammatory signs has been presented.

The occurrence of odontogenic epithelium in the wall of dentigerous cyst is a well known entity. This epithelium usually remains inactive and does not have clinical significance, but these small inactive islands of epithelium may be stimulated, resulting